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민 병 곤*

<차 례>

- I. 논의의 배경
- II. 논증 도식의 기능과 유형
- III.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논증 도식
- IV. 논증의 인지적 절차와 논증 도식의 기능
- V. 논증 도식의 운용과 사회적 상호 작용
- VI.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시사(示唆)

I. 논의의 배경

이 논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적 담화 및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argumentation scheme)이 운용되는 양상과 그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증 도식이란, 논증을 일련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전제 즉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결론 즉 주장으로서 진술된 것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이다(Eemeren & Grootendorst, 1992:96).

논증 도식은 논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분류 방식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 논리학에서는 논증 도식을 논증의 형식에 따라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구별하여 왔고, 이러한 형식적 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논증의 장(field)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형식 논리학의 분류는 지나치게 형식화·단순화되어 있고, 장에 따른 분류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중복 분류로 귀결되는 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일상의 논증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미론적 분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²⁾

논증 이론에서 논증 도식에 대한 관심은 주로 논증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 더 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논증 도식보다 논증 유형(type of argument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기도 한다. 그리고 논증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논증의 건전성(soundness)을 평가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논증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명제 간의 형식적 타당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관련성(relevance), 충족성(sufficienc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등을 기준으로 논증의 강도와 설득력을 중시하고, 화용·대화론에서는 갈등의 해결이라는 논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의 준수 여부를 중시한다. 그리고 수사학에서는 논증 도식을 논증의 효과적인 기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논증 행위가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담화적 실천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합리성이 논증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용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이며, 생산적 측면에서는 논증 도식을 표현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표현 전략의 관점에서 인지 도식(스키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논증 도식이 언어적·인지적·사회적

1) Toulmin(1958)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삼단논법의 형식적 구성 요소를 대신하여, 논증의 요소를 주장, 근거, 보장으로 나누고 논증의 장을 고려하여 보장의 성격에 따라 논증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2) 논증 도식에 대한 의미론적 분류를 시도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Perelman & Olbrechts-Tyteca(1958), Schellens(1985), Eemeren & Kruijer(1987)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수렴하여 가장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저작으로는 Kienpointner(1992a, b)를 들 수 있다.

계약 속에서 운용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것이 국어교육 특히 작문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문 및 작문 결과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을 조직하였다. 본고에서는 글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인용하며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³⁾

II. 논증 도식의 기능과 유형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논증 도식은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논증 도식이 논리적 기능보다는 수사적 기능 또는 설득적 기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논증 도식은 대화에서 단위 논증(an argument)을 소통하는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화에서 어떤 종류의 진행(moves) 또는 화행(speech acts)이 관습적으로 수용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Walton, 1996:9). 따라서 설득의 관습으로서의 논증 도식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계약을 처리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음 지문을 살펴보자.

- (1) [1]학생들은 이제 막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할 수 있다. [2]이런 학생들을 교복으로 규제하고 감시하고 자유를 제한해 버린다면 [3]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착한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에 [4]선생님들을 불신하고 반항한다면 [5]교복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6학년 남학생이 교복 착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의 일부이다. 제시된 부분에는 유추 도식(analogy scheme)과 인과 도식(causali-

3) 본 논문은 필자가 준비 중인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ty scheme)⁴⁾이 사용되었다. 글쓴이는 학생들을 ‘이제 막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하면서 교복 착용으로 빚어질 결과에 호소함으로써,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교복으로써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유추 도식과 인과 도식은 교복 착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증을 구성하기 위한 인지적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왈튼(1996)에서는 유추 도식과 인과 도식을 각각 (2), (3)과 같이 형식화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례 C1이 사례 C2와 유사하다.

A가 사례 C1에서 참(거짓)이다.

그러므로 A가 사례 C2에서 참(거짓)이다.

(3-a) 일반적으로 A가 일어난다면, B가 일어날 것이다(일어날지 모른다).

이 경우에, A가 일어날 것이다(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B가 일어날 것이다(일어날지 모른다).

(3-b) 만일 A가 일어난다면, 좋은(나쁜) 결과가 (아마)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A가 일어나야(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논증 도식이 논증자에게 인지 도식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과 같은 논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논증 행위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증 행위 속에서 논증 도식이 기능하는 데에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제약이 관여하게 된다.

논증 도식의 운용이 언어적 자원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논증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 (1)을 컴퓨터로 작문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프로토콜을 살펴보자.⁵⁾

4) 인과 도식에는 원인-결과, 행위-결과, 수단-목적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는 하위 부류들이 있을 수 있다. (1)에서 사용된 인과 도식은 원인-결과(3-a), 행위-결과(3-b)의 부류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5)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으로 작문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한 것이다. 굵은 글씨 표시는

(4) 학생들은 이제 막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을 교복으로 규제하고 감시하고 {학생들이}→{ } 자유를 제한해 버린다면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좋은}→{착한}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을 불신하고 반항한다면 교복은 {안 좋은}→{ } 선생님과 학생(들을 이어놓는)→{들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는} 억지로 더욱 벌려놓는 {최고량에 지나지 않는}→{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가 어휘 및 통사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는 단어, 어구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서 최종 텍스트를 생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논증 도식은 표현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도우미의 역할을 한다.

논증 도식과 인지적 제약의 관련성은 논증 도식이 인지적 자원의 하나인 인지 도식(cognitive scheme)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논증 도식을 파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논증 도식을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위 (2), (3-a), (3-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도식을 연결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인지적 제약이 수반된다. (4)에서 두 번째 문장을 작성할 때의 수정 행위가 이러한 제약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논증 도식과 사회·문화적 제약의 관련성은 그것이 담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문화적 배경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의 [1]에서 [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 자라나는 묘목’의 특성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 말하자면, ‘묘목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독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것이며, ‘교복’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주거나 자부심을 주는 긍정적 기능보다 억압과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국의 공교육

음성화된 부분이며 밑줄 친 부분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된 부분을 나타낸다. { } → { } 표시는 수정, 삭제, 첨가 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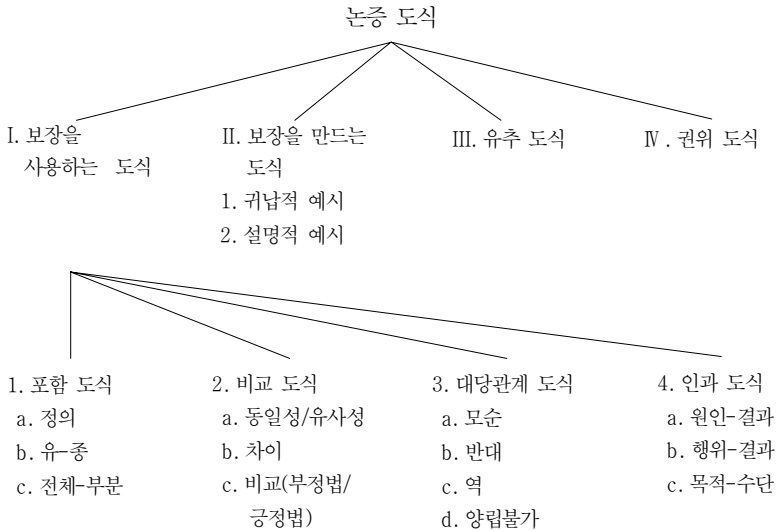
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논증 도식이 기반이 되어 아이디어가 생성·조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의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논증 행위는 이러한 제약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숙달시킴으로써 인지 능력을 그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논증 도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논증적 글 쓰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증 도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논증자의 인지 능력을 독자(또는 청자)와의 상호 작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논증 도식의 목록은 단순화할 경우 두세 가지에서부터 세분할 경우 그 수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다. 도식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추상하여 일반화된 형식이기 때문에 추상화 또는 일반화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비형식 논리학과 수사학 및 화용·대화론의 논증 유형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가장 체계적인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Kienpointner(1992a, 1992b)를 살펴보고자 한다.

킨포인트너는 논증의 유형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 즉, 연역적 논증과 귀납적 논증이라는 이원적 분류가 이론적·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고 보았다. 일상 논증의 다양한 변이형들을 연역과 귀납의 이분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키포인트너의 분류가 갖는 의미는 형식 논리학의 분류가 일상어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이거나, 화용·대화론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유형 분류를 함으로써 생기는 적용상의 문제, 그리고 수사학에서 그것을 수사적 기법이라는 관점에서 봄으로써 생기는 비체계성의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형식 논리학과 수사학의 전통을 포괄적으로 수렴한 키포인트너의 논의를 따르기로 하겠다. 다음은 키포인트너가 분류한 논증 도식의 목록이다.

[그림1] 키포인트너의 논증 도식 분류



키포인트너는 톨민(1958)을 따라 논증 도식의 원형을 보장(warrant), 논거(argument), 결론(conclusion)의 구조로 파악하고(여기에서 보장을 사용하지 않는 예시 논증은 예외이다), 보장의 유형과 전제 또는 결론으로서의 보장의 지위에 따라 논증 도식을 분류하였다.⁶⁾

첫 번째 유형은 보장을 사용하는 도식으로, 여기에는 (1) 정의(定義), 유-중 관계, 부분-전체 관계 등에 기반을 둔 ‘포함 도식,’ (2) 동일성·유사성, 차이, 비교 등에 기반을 둔 ‘비교 도식,’ (3) 모순, 반대, 역, 양립불가 등에 기반을 둔 ‘대당관계 도식,’ (4) 원인-결과 관계, 동기, 수단-목적 관계 등에 기반을 둔 ‘원인 도식’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보장을 만드는 도식으로, 이 유형은 한두 개의 사례를 이용하여, 다음 논증에서 사용할 보장을 만들어 내는 논증이다. 여

6) 키포인트너(1992b)는 논증 도식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준거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1) 기술적 도식(descriptive scheme) 대 규범적 도식(normative scheme), 2) 실제적 도식(real scheme) 대 가상적 도식(fictitious scheme), 3) 찬성 도식(scheme of pro-argumentation) 대 반대 도식(scheme of contra-argumentation).

기에서는 (1) 보장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는 귀납적 예시와 (2)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보장을 이끌어 내고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는 설명적 예시를 구분한다.

세 번째 유형은 유추 도식으로, 이것은 어떤 일반적 보장이 포함되지 않는(전제로 사용되지도 않고, 결론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 사례별(case-by-case) 논증이다.

네 번째 유형은 권위 도식으로, 이것은 다른 유형의 보장과는 달리 의미 관계(원인-결과, 목적-수단, 유-종, 부분-전체 등)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논증 도식은 단위 논증의 명제들 간에 존재하는 의미 관계의 유형화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담화적 실천 속에서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증 도식이 설득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과 조직의 기제가 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설득의 대상, 나아가 논증적 상호작용의 대상인 청자의 능동적 반응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논증 도식의 기능에 대한 고찰은 화용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논증 도식의 분류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것은 실제 담화 및 텍스트에서 어떤 논증 도식이 선호되고, 논증 도식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며, 논증 도식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러한 양상을 추동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탐색이다. 논증 도식에 대한 연구는 화용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논증 담화의 구성에서 작용하는 논증적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III.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논증 도식

III ~ V 장에서 살펴볼 문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특정 논제를 다루는 논증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논증 도식은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논증 도식이 논증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

셋째, 논증 도식이 그와 같이 운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양상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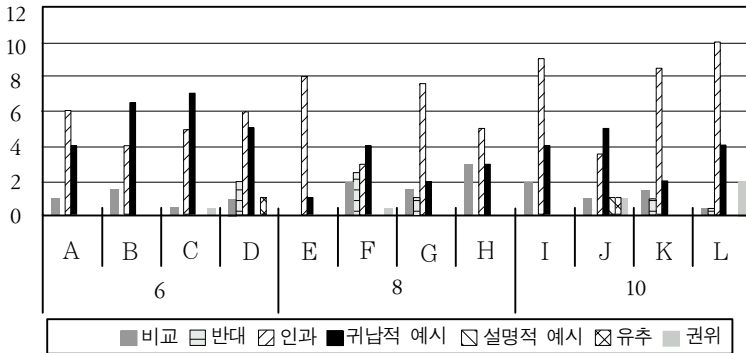
위의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은 작문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작문 과정을 고찰하였다.

- (5) ※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시오.

<유의 사항>

1.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려할 것.
2.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안에 글을 마무리 지을 것.
(분량은 1시간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정도)
3. 학교 신문에 투고하는 글이라고 생각할 것.
4. 제목을 정할 것.

[그림 2] 작문 텍스트에 반영된 논증 도식의 분포



교복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작문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논증 도식의 분포는 학년별·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부분 비교, 인과, 귀납적 예시 논증 도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교복 착용에 찬성하는 J 학생이 쓴 글에는 귀납적 예시, 인과 도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비교, 설명적 예시, 유추, 권위 도식 등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이 텍스트에 사용한 논증 도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고르게 사용된 논증의 유형은 ‘인과 논증’, ‘귀납적 예시 논증’, ‘비교 논증’이었다는 점, 둘째, 그 밖에 ‘대당 관계 논증’, ‘설명적 예시 논증’, ‘유추 논증’, ‘권위 논증’ 등도 적은 수이지만 사용되었다는 점, 셋째, 논증 도식의 분포는 개인별,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텍스트에서 어떤 논증 도식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교복 착용’의 문제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논증은 그 정책이나 행위를 선택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가, 그리고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것이 적합한 수단인가 따위에 대한 논의 즉, 인과 논증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교복’은 ‘사복’과의 비교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의 정책이나 행위나 수단이 성취해 내는 결과나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귀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제를 논의하는 데서 다양한 논증 도식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텍스트의 질적 특성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논증 도식을 사용한 텍스트가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논증 도식의 분포가 개인별·학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논증의 유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때, 개인의 능력이나 발달 수준에 따라 위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떤 논증 도식이 더 기본적이고 더 고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논증 도식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이 텍스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작문에 대한 학생들 간의 상호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의문은 그 논증이 어떤 유형의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인과 논증은 논증의 인과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권위 논증은 권위의 원천이 논증의 타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추 논증은 논증의 대상과 유추의 대상 간의 관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주로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논증 교육에서 비판적 읽기를 위한 텍스트 분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면 위와 같이 논증 텍스트에 반영된 논증 도식이 텍스트 생산의 인지적 절차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V. 논증의 인지적 절차와 논증 도식의 기능

필자는 논증 텍스트 생산의 인지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작문 과정에 대한 사고 구술법(think aloud method)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사고 구술법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작문의 과정을 지필을 활용한 작문의 과정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문의 과정을 컴퓨터 화면으로 녹화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구두로 생산한 사고 구술 자료를 함께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⁷⁾

7) 실제 프로토콜의 생성 과정에서 필자들은 사고 과정에 대한 언급보다는 ‘구술 작문’에 가까운 음성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것은 피험자들이 사고 구술법에 숙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지만⁸⁾ 입력의 속도가 필사보다 빠르다거나 자유로운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컴퓨터 작문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컴퓨터 작문 프로토콜을 기술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약은 다음과 같다.

- ① **굵은 글씨체**: 음성으로 표현한 말을 표시함.
- ② **밑줄**: 모니터에 입력된 문자를 표시함.
- ③ **굵은 글씨체+밑줄**: 음성 표현과 문자 입력이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함.
- ④ **보통 글씨체+밑줄**: 모니터에 입력만 되고 음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를 표시함.
- ⑤ {a}→{b}: a를 b로 수정하였음을 표시함.
- ⑥ {}→{a}: a를 첨가하였음을 표시함.
- ⑦ {a}→{}: a를 삭제하였음을 표시함.
- ⑧ (1') : (위첨자) 내용 수정을 위하여 커서 이동한 수정 부분을 표시함.
- ⑨ (1) : (아래첨자) 앞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커서를 위치 이동한 자리를

프로토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증의 인지적 절차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논증자가 고려하는 인지적 요소, 둘째,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행위의 과정, 셋째, 논증의 요소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논증의 인지적 절차를 다음의 몇 가지 요소로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입장의 선택과 표현, 논거의 생성과 조직,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 수사적 전략의 고려,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등.⁸⁾ 물론 이것은 논증의 인지적 절차와 순차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차적이기보다는 평행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⁹⁾

논증 행위의 인지적 절차 속에서 논증 도식과 주로 관련된 부분은 ‘논거의 생성과 조직,’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 이 두 부분이다.¹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증 도식의 기능 양상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표시함.

⑩ (): 그 밖의 동작을 설명함.

⑪ ... : 정지 상태일 경우, 커서가 움직인 숫자만큼 점을 찍어 줌. 단, 3회 이하의 커서 움직임은 무시함.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만 횡수를 셈. 가령, 커서가 5회 째 박인 경우 .. 과 같이 표시함.

⑫ [a]: a는 다른 사람의 말을 표시함.

⑬ { } : 1차로 수정된 부분을 재수정할 때의 묶음 표시

* 입력 실수 또는 타이핑 오류는 무시하고, 의미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만 표시. 적어도 낱말 수준에서(조사 포함) 예를 들어 그것은을 그것이로 바꾸는 경우는 표시함. 그것{은}—{이}; {그것은}—{그것이}

- 8) 각 범주적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하기로 함.
- 9) 이러한 범주 설정과 각 범주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Beaugrande(1984, 1997)의 평행적 상호작용 모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 10) 입장의 선택, 수사적 전략, 언어 표현 등도 논증 도식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1. 논거의 생성과 조직¹¹⁾

논증 텍스트에서 논거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논증 텍스트는 여러 가지 논거들로 이루어진 복합 화행이기 때문에 논증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논거의 생성과 조직은 논증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논거의 생성과 조직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평행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 논증자는 입장을 지지할 논거들을 무작위로 떠올려 보고 그것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기도 하지만 조직의 틀을 먼저 떠올리고 그에 적합한 논제들을 채워 나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여러 학생들이 교복 착용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거론하였는데, 장·단점에 대한 거론은 논거를 생성하는 인지적 틀이면서 동시에 논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¹²⁾

그러면 개인별·집단별로 논거의 생성과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어떻게’의 문제를 여기에서는 첫째, 논거를 생성하는 인지적 자원이 무엇인지, 둘째, 자원으로부터 자료를 떠올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셋째, 자료를 조직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논거를 생성하는 주요 인지적 자원은, 교복 착용의 직접 경험, 교복 착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회적 공론, 그리고 교복 착용 문제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 추론 등이었다. (6)은 교복 착용의 직접 경험을 인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11) 이 항에서 ‘논거’는 글쓴이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만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 논거들은 대체로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입장을 지지하는 가장 상위의 논거들을 말한다. 그러나 논거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하위 논거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장·단점이라는 틀 속에서 논거를 생성하는 것은 논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단점의 비교를 통한 ‘비교 도식’에 의한 논증은 ‘행위와 결과’를 대비시키는 ‘인과 도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경우의 예이다.

(6-a) “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복을 입었다. 그러면서 교복⁽¹²⁾{은}→
{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게 되었다. 되었다.”(A 학생의 글)

(6-b) “⁽³⁾{또 교복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경우도 있는데,}→하지만 힘
없는 아이들{을}→{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는데 교복을 줄여 입는 학
생이 학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학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 힘이 없는 아이들과 교복을
바꿔 입어서 힘이 없는 아이들과 교복을 바꿔입어서 어 자기 대신
친구가 혼나는 경우도 ⁽³⁾ 있다.”(C 학생의 글)

다음은 교복 착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공론에서 논
거의 자원을 얻은 경우이다.

(7)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학부형}→{학부모}들은 옷 걱정을 안해서 좋
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밖에도 교복의 좋은 점은 많이 있다. 이 밖에
도 교복의 좋은점들은 많이 있다. 어 일단 견학을 가거나
수련회를 갔을 때 견학을 가거나 수련회를 갔을 때 교복을 입음으로써
입음으로써 남들에게 남들에게 학생들이 매우 단정해 보이고, 고, 보
이고 일치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치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일치감같은 느낌도 어 느낌도 준다고 한다.”(C 학생의 글)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견해나, 사회적 공론에 대한 지식으로
부터 논거를 생성해 내는 경우는 A, B 학생보다 C, D 학생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교복 착용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이 활용된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8)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 모든 사람은 아
.....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법이 있다. ... 교복착용은
결국 법을 무시하고 교복착용은 결국 법을 무시하고 .. 교복 착용은
결국 법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 {우리의}→{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에서 이상한데?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에서 제한한다는 뜻이다.”(F 학생의 글)

보편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을 활용한 논거의 생성과 조직은 6, 8, 10학년 집단 학생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더 높은 학년 수준의 작문에서 논리적 추론이 더 정교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거의 생성과 조직의 차원에 대한 논의는 곧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의 요소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논증적 텍스트의 주제를 전개하기 위한 상위 구조(supestructure)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상위의 근거가 대부분 ‘행위-결과’의 관계로 맺어진 ‘인과 도식’과 ‘차이’에 기반을 둔 ‘비교 도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복을 입는 ‘행위’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초점을 맞추되, 찬성 측에서는 긍정적 결과에, 반대 측에서는 부정적 결과에, 그리고 중립 측에서는 긍정·부정의 결과 모두에 비중을 두어 논거를 산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논증 도식의 선택을 엿볼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 (9) “음 교복을 2년 동안 입었지. 입으면서 내가 내가 느낀 교복(의)→은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단점이 더 많았어.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¹⁾{→}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교복의 장단점을 따져서 따져 ⁽²⁾{보고 싶다.}→{보겠다.} [중략] 결론적으로 나는 교복을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교복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교복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즉→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복을 입기를 원한다면 입을려면 입을 것이면 교복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늘려야지 늘려야 하는 것이다.”(A 학생의 글)

(9)에서는 중립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교복 착용의 결과가 갖는 장·단점을 모두 거론하였지만, 찬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생은 교복 착용의 긍정적 결과에 무게를 두었으며,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교복 착용의 부정적 결과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결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준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거의 차이로 인하여 교복을 입는 ‘행위’의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증 방식은 소위 ‘실용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의 범주에 속한다.¹³⁾ 실용적 추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복 착용’에서 빚어지는 결과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판정할 수 있는 준거는 바로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찬성자는 ‘소속감’이나 ‘일체감’, ‘공부’, ‘학생의 본분’ 등의 목표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반대자는 ‘자유’ 또는 ‘자율’, ‘개성’ 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러면 상위 수준의 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논증자들이 논증의 도식과 내용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 어떠한지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

어떤 행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행위-결과’의 도식에 기반을 둔 인과 도식의 인지적 패턴을 따른다. 결과가 좋다면 그 행위는 선택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면 양자를 비교하는 인지적 사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 한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어야만 자신의 논증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비교 도식이 선택된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구체적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귀

13) 실용적 추론이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최초의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 사이에 지각된 간극에 가교를 놓는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목표 지향적인 추론’이다(Walton, 1990: xii). 실용적 추론을 위한 논증 도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주장) A가 목표이다. A를 하는 데 B가 필요하다. 따라서 B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Walton, 1990: 85).

납적으로 일반화하는 귀납적 예시를 통해서 기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례는 다시 여러 가지 논증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왜 그 사례들이 장점 또는 단점을 보여 주는 것인지 논증하게 된다. 예컨대 “교복을 입으면 자유롭게 놀 수가 없다”라는 명제를 교복의 단점을 나타내 주는 사례로 제시하고 “교복을 입고 놀면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면 이 경우는 ‘행위-결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인과 도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논증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6학년 A 학생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학생이 쓴 글의 논증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10)

SP 교복을 입을 수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과>

1 교복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비교>

1.1a 교복 착용은 3가지 장점이 있다. <귀납적 예시>

1.1a.1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과>

1.1a.1.1a 단정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

1.1a.1.1b 옷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1.1a.2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만든다. <인과>

1.1a.2.1a 사람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느끼면 협동심이 생긴다.

1.1a.2.1b 교복은 친근감, 소속감 등을 느끼게 한다.

1.1a.3 옷 때문에 부모님과 충돌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인과>

1.1a.3.1 매일 학교에 입고 가야 할 옷이 정해져 있다.

1.1b 교복 착용은 4가지 단점이 있다. <귀납적 예시>

1.1b.1 학생들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무시한다. <인과>

1.1b.1.1 교복은 학생을 획일적으로 대하게 만든다.

1.1b.2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귀납적 예시>

1.1b.2.1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인과>

1.1b.2.1.1 질서를 망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금한다.

1.1b.3 자유롭게 놀 수가 없다. <인과>

1.1b.3.1 교복을 입고 놀면 더러워지기 쉽다.

1.1b.4 교복은 일체의 잔재이다. <인과>

- 1.1b.4.1 일본인 교사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위협하였다.
- 1.1b.4.2 교복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거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패턴을 이루는 것은 바로 논증 도식이다. 위의 학생이 <1.1b.3>에서 논거를 선택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프로토콜을 확인해 보자.

- (11) 이. 우리가 느끼는 느낀 교복의 단점 세 가지. 우선 개성을 나타내
낼 수 없다. 예를 들어, 음, 음, 음, 음 뭐라 하나면 음... 좀 튀기 위
해서 치마 길이를 줄여 어른들한테 걸리고 바지를 길게 입거나 옷을
따른 걸 입어도 걸리니까 신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이면 멋이 있어지고 멋을 낼 수가 있고 자기만의
패션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를 줄이거나 늘이면 분
명히 선생님들께 걸린다. 그러면 도루묵이다. ⁽⁹⁾ { } → { 이렇게 } 자기
 만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하면 주위의 뭐지 주위의 질서를 망친다는
 이유로⁽⁹⁾ 혼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분통한 일인가? 음흠.

이 학생은 먼저, 단점이 몇 가지인지를 떠올리고, 그 각각을 예시해 나가고 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례는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까닭은 선생님들이 못 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학생의 경우 이와 같이 대체로 ‘인과 도식 → 비교 도식 → 귀납적 예시 도식 → 인과 도식’의 패턴으로 논증 텍스트를 구성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도식이 모든 학생의 텍스트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복 착용에 반대하는 8학년 집단의 한 학생은 교복의 단점만을 귀납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학생의 경우 비교 도식은 교복의 단점에 대한 귀납적 예시 속에서 미시적인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다음은 이 학생의 논증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12)

SP 교복을 입는 것에 반대한다. <인과>

- 1 교복은 활동을 불편하게 만든다. <귀납적 예시>
 - 1.1 교복은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억제하고 제어한다. <인과>
 - 1.1.1 교복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이 그러하다.
 - 1.2 남녀 공학의 경우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불편하다.
 - 1.3 활동에 편리하게 고쳐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인과>
 - 1.3.1 교복이란 본래 육체적인 제어보다 정신적 제어를 위한 것이다.
- 2 교복은 우리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인과>
 - 2.1a 교복은 일제[군국주의]의 잔재이다. <인과>
 - 2.1a.1a 서당에 다닐 때에는 교복이 없었다.
 - 2.1a.1b 우리는 일제 때부터 교복을 입게 되었다.
 - 2.1b 일제의 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인과>
 - 2.1b.1a 일제는 우리에게 민족적 수모를 안겨 주었다.
 - 2.1b.1b 교복은 우리 민족에 대한 억압의 수단이었다.
 - 2.2 오늘날에는 사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인과>
 - 2.2.1a 오늘날 우리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다.
 - 2.2.1b 선진 자유 국가에서는 사복을 입는다.
 - 2.2.2 학생들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2.3 교복을 입는 것은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행위이다. <인과>
 - 2.3.1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을 빼앗아간다.

이 학생의 경우 잠재적으로는 사복과의 대비 속에서 교복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논증 구조상으로는 이러한 대비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와 일제 때를 비교해 볼 때 교복이 맞지 않는다는 것과 선진 자유국가와 대비해 볼 때 사복이 더 어울린다는 점, 그리고 교복이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데 비해 사복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 등 인과 도식의 틀 속에서 비교 도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패턴은 교복이 갖는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 역시 교복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도식을 인지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다음의 프로토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많은 학교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그것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 그런데 ⁽¹⁾{→(많은)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1)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 굳이 말하자면 나도 교복 입는 것에 반대한다... ⁽⁶⁾{→(세 줄 삼입) ⁽⁷⁾{→(_ _ ; 그렇다면 교복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하여 알아 보고 대하여 알아 보고 교복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교복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가⁽⁸⁾{?에}→(에) 앗.. 짬짬. (글자판을 잘못 선택하여 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⁸⁾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⁹⁾(두 줄)→(}

교복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장점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교복의 장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 10학년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K 학생은 교복의 장점을 중심으로 상위의 논거를 구성하였고, 그 이하에서는 비교 도식, 인과 도식, 대당관계 도식 등을 활용하였다.

(14)

SP 교복을 입는 것이 좋다.<인과>

1 교복은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과 친밀감을 형성한다.<비교>

1.1a 사복은 학생들의 소비와 사치 생활을 심화시킬 것이다.<인과>

1.1a.1a 학생들의 소비 문화가 극심한 상황이다.<귀납적 예시>

1.1a.1a.1 교복을 입으면서도 메이커 있는 신발이나 가방을 선호한다.

<인과>

1.1a.1a.2 학생들은 서로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가 있다.

1.1a.1b 사복을 입으면 복장에서 빈부 차이가 드러난다.<비교>

1.1a.1b.1a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좋은 옷을 입을 것이다.

1.1a.1b.1b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은 좋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

1.1a.1c 복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다.

<귀납적 예시>

1.1a.1c.1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부끄러움을 갖는다.

1.1a.1c.2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1.1b 교복을 입으면 복장에서 빈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인과>

- 1.1b.1 경제적 형편에 상관 없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게 된다.
- 2 교복을 입으면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여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 <비교><인과>
 - 2.1a 교복을 입으면 자신이 속한 학교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
 - 2.1b 자기 학교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2.2a 사복을 입으면 (자신이 속한) 학교 이름을 속일 수 있다.
 - 2.2b 실수를 두려워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
 - 2.2c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3 교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대당관계>
 - 3'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다.
 - 3.1 사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인과>
 - 3.1.1a 사복을 입으면 옷 고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다.
 - <인과>
 - 3.1.1a.1 자신에게 예뻐 보이는 옷을 고르느라고 고민을 할 것이다
 - <인과>.
 - 3.1.1a.1.1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 3.1.1b 사복을 입으면 아침마다 지각을 하게 될 것이다.<인과>
 - 3.1.1b.1a 아침에 학교 갈 준비만 하더라도 바쁘다.
 - 3.1.1b.1b 가꾸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 3.1.1c 사복을 입으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수 없다.

이 학생의 경우는 세 번째 논거를 들 때 대당관계 도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복 착용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인식적 패턴에서 교복의 장점을 강조하는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명제로부터 “교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3'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략되는 전제를 명시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교복을 입으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연역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¹⁴⁾

14) 여기에서는 전제가 명시되었으나, 대개는 소위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생략되게 마련이다. 생략된 대전제를 재구성해 보면 논증자의 가치 기반 또는 사고의 문화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언급한 바 소위

다음 프로토콜은 위의 세 번째 논거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15) {우리는 학생의 본부}→{ }⁽²⁰⁾ 그리고라고만 할 ?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해야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복을 입으면 매일 아침마다 교복대신 사복을 고를 것이고 남보다 더 이쁘고 가꾸는데 아침시간을 보낼 것이다. 또 또 ... 매일 사복을 입으면 사복을 고를 것이고 남보다 ?⁽²¹⁾ {→{일찍} 일어나서⁽²¹⁾ 학교 갈 준비하는 것도⁽²²⁾ {이쁜데}→{바쁜데} ? 왜 안 써져? 일어나서 학교 갈⁽²²⁾ {가꾸는 시간}→{가꾸기}까지 할려면 할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이 ? 찬성 3:1 가꾸기까지 할려면 {몇분을 더 필요없는 기}→{ } 얼마나 일찍 준비를 해야 할까?? {그런시간에 아침밥을 먹는 ...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좋을것같다. 교복을 입으면}→{ } 남들보다 더 튀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게 사람들의 욕망인데 사복을 입으면 이런 고민{이}→{을} 하는데 더욱 시간을 보낼 것이다.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한}→{하는데} 이런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교복을}→{앞에서 말한}→{ } 교복을 입는건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할수 있고 {학교 이름}→{실수}→{ } 충실할수 있고 {친구들과의}→{남들}→{ } 뭐라고 쓰지?

여기에서 위의 논증 구조 분석과는 달리 하위의 명제들을 전제로 제시하여 인과적으로 연결하고 사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뒤, 이로부터 대당명제인 교복을 입으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교복을 입는 건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할 수 있고”와 같이 요약한 데서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논증자가 선호하는 인지적 패턴은 기본적으로 논제의 성격에 달려 있고 나아가 찬성, 반대, 중립 등 논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모든 논증자에게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 발달 수준 또는 논증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선호되는 인지적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

‘말터(topos)’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있다. 앞서 제2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체로 더 우수한 텍스트를 생산한 논증자가 더 다양한 논증 도식 즉 인지적 패턴을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추리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논증의 구조나 도식만으로 이러한 가설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같은 논증 도식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명제들 간의 관계망이 얼마나 논리적인가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 선택, 또는 주도자와 반대자의 역할 부여에 따라 사고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주도자의 경우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논리 즉 보장과 가치 기반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 기반과 보장을 생성해 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역적인 사고보다 귀납적인 사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자의 경우는 현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확립된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모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 상태(status quo)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복 착용을 정당화하는 보장과 가치 기반이 현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복 착용에 반대하는 주도자의 경우, 교복 착용의 문제점이나 사복 착용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귀납적 예시나 설명적 예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대자의 경우, 이미 확립되어 있는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가령,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교복을 입어야 한다든가 [인과 도식(목적수단)], 아니면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포함 도식(정의)] 아니면 교복의 장점을 사복의 단점과 비교하는 [비교 도식(차이점)] 논증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경향성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바로 앞에서 살핀 K 학생의 글에서 “교복을 입는 건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할 수 있고”라고 한 부분이나, I 학생의 글에서 “나 역시 교복을 그리 원하는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정 관념 때문일지 몰라도 교복 착용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이러한 연역적 사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 학생이, 교복 착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 또는 보장(warrant) 들을 논박하고 이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사복 착용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교복 착용에 반대하는 경우의 귀납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은 L 학생의 프로토콜의 일부이다.

- (16) 아마도 교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 {아까}→⁽²⁴⁾{전에}→{지금} 지금⁽²⁴⁾ 지금 언급했던 상황이 일어남을 이유로 근거로 “⁽²⁶⁾{돈을 구하기 위한 ⁽²⁵⁾{범죄}→{ }나⁽²⁵⁾, 범죄를 학생들의}→{ } 범죄를⁽²⁶⁾ 학생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 많은 다양한 일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이때 좋지 않은 {방법을}→{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는 경우가 {꼭 있기 때문에}→{있기 때문에} ⁽²⁷⁾{학생범죄}→{학생의} 가⁽²⁷⁾ 일탈 행동이 증가하고 ⁽²⁸⁾{일}→{ }일탈 행동이 증가하고⁽²⁸⁾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며, 학생들의 범죄도 증가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교복 자율화에 반대를 한다. 자... 과연 그들 말대로 돈만 범죄만 {범죄나 사회혼란}→{ } 사회혼란은 좀 심한 말인데 학생들의 일탈이나 범죄 행동이 증가하기만 했는가, 다음을 보자.

[중략]

비록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그당시의 정황}으로 보아서 충분히 근거로 삼을만한 이야기가 있다. [마무리 해야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5분안에 마무리 하도록] 너무 장황하게 써 버려가지고 수습하기가 가능할려나? 쉬울려나? 그게 이제 막 본론에 들어갔는데 언제 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아도 한 방송사에서 한창 교복자율화가 논란이 되었을 때 사채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와? 갑자기 사채가? 방송된 것이었는데 {그것에서}→{그 프로에서} 교복자율에 찬성하는 한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교복 찬성자들이 찬성론자들은 학생들의 일탈 방지 차원상, 또 쓸데 없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원으로서 교복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교복 어 왜이래 어 무서워 자율화라는 것 내가 제일 오래 쓸 것 같애 이거 때문에 생긴 ⁽³¹⁾{사회적 문제도 거의 ⁽²⁹⁾{없어}→⁽³⁰⁾{없고}→{없었고} 없고⁽²⁹⁾ 없었고⁽³⁰⁾ {실제로도}→{ } 이 때문에 일어난}→{ } 사회적 사회적⁽³¹⁾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소년 범죄 또한 주장하는 대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허구다.”라고 했다. 비록 100% 신용할 근거는 되지 않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

한 근거라고는 생각되는 바이다.

첫째 문단에서 “아마도 교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 라는 주장을 펼치며 교복 자율화에 반대를 한다. 자 그들의 말대로 … 증가하기만 했는가”라고 한 부분이나, 둘째 문단에서 “교복 자율화에 반대하는 한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 라고 했다.”며 현 상태를 부정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 권위 논증을 펼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논제의 성격, 논증자의 입장, 인지적 수준 또는 논증 능력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증 도식의 운용과 사회적 상호 작용

논증행위를 매개로 한 논증자 간의 상호 작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문 텍스트에 대한 소집단 동료 평가 활동을 조직하였다.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담화는 일종의 메타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소집단 내의 피드백과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집단별·개인별로 사고 활동이 어떻게 촉진되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교화되고 재조직되는지, 그리고 구성원 간 의견의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동료 평가 활동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논증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의 동료 평가 활동은 4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담화로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논증 행위를 살펴보면 논증적 상호 작용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논증 도식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⁵⁾

15) 이러한 범주 설정은 다분히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이지만 논의의 편의상 연역적 기술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상호 작용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논증 도식의 선택, 적용, 표현에 대한 논증자 간 상호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상호 작용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의문의 제기에 반응하는 양식에 따라 수용, 해명, 반박, 조정 등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상호 작용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작용이 얼마나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상호 평가 활동 후 텍스트가 어떻게 수정·보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상호 작용의 내용

동료 평가 활동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과 관련한 논증자 간의 상호 작용은 전제의 적절성, 추론의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비판적 의문과 그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래 6학년 B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인 (17)과 이 부분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일부인 (18)을 살펴보자.

(17) 우선 어른들은 질서정연한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복을 입고 단정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교복을 입으면 옷 같은 것에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공부에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18) C: 꼭 어른들이 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질서정연 정이 어린이식 표현에 질서정연한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B: #아니 그거 내가 잘못 썼다고.#

C: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이 어린이의 경우에 정이 어린이의 특기와 소질인 첼로를 첼로부 합주부나 그런 활동을 통해 어 첼로의 실력을 키우고 있고 이 밖에도 우리는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어 각자 소질과 재능을 키워 갑니다. 어, 정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B: #나는 예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18)에서 C 학생은 B 학생이 ‘어른들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복 착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B 학생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전제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의문과 그에 대한 반응의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 (19)는 10학년 J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고 (20)은 (19)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일부이다.

(19) 교복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이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빈부 격차... 어떤 장소에서건 빈부격차는 나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옷을 잘 입고 못 입고에 따랐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아마도 못 입고 다니면 스스로가 잘 입고 다니는 아이들 보다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거나 잘 입고 다니는 아이들 앞에서는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은 잘 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나고까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긍정적으로 살아도 짧은 삶을 말이다.

(20) L: [...] 그냥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옷 때문에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난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위축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옷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여기는 약간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 게. 나 같은 경우는 맨날 이런 옷이나 줄창 이것만 입고 다니잖아. [...] 내가 맞으면 장땡인 거지 남을 보면서 그렇게 주눅을 드는 것도 그렇고 주눅이 든다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

J: 너나 나처럼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사는 애들이면 몰라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커 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모든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애들이 있던 말이야.

L: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면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애 갖고.

J: 응, 그래. 그런 점은 나도 인정을 해.

(20)에서 L 학생의 비판적 의문은 J 학생의 글에 나타난 논리적 비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복을 입으면 빈부 격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J 학생의 논리가 ‘인과 관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J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면서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인과 도식’을 이용한 논증의 추론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의문의 제기도 상호 작용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컨대 아래에서 8학년 G 학생 글의 일부인 (21)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일부인 (22)를 살펴보자.

(21) 그러므로, 자기가 입고 싶은 데로, 교복을 입게 내버려 두면, 지금보다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교복을 고쳐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안 걸렸다는 것을 희열로 삼는 아이들도 있지 않은가? 차라리 교복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도 그만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22) H: 음, 여기 “차라리 교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서로의 서로가 편하지만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학교 학생들 (?)#

G: #그것 말고도 신경써야 할 문제는# 많잖아.

H: 그런데 교복이 솔직히 지금 잡다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복 문제잖아, 우리 학교의 경우. 솔직히 교복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구두 때문에 교복이 걸리는 거고 아니 교복 때문에 구두가 걸려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 별로 이거는 선생님이 포기한다는 문제점은 조금 좀 그런데.

((휴지))

G: 포기하면. ((휴지)) 아니 그런데 그걸 또 제약한다고 해도 애들은 그 제약 때문에 더더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H: 아니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니까 만약에 골치가 된다고 그랬잖아. 골치가 서로 골치가 아픈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서로 골치 아프다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솔직히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애.

(22)에서 G 학생과 H 학생의 대화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신경 쓴다’는 표현이 빚어내는 의미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 쓴다’는 말의 의미를 G 학생은 ‘규제’의 의미로, H 학생은 ‘관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의견 차이가 ‘신경 쓴다’는 말이 갖는 중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논증 행위를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 학생의 비판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G 학생은 자신의 입장이 방어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고의 표현을 수정본에서도 고치지 않았다. 이 경우 두 학생이 언어 표현상의 모호성에 기반을 둔 논증의 도식과 이러한 도식이 사용될 때, 어떤 비판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좀더 생산적인 논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2. 상호 작용의 진행

상호 작용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동료 평가 활동에서 나타난 상호 작용의 양상은 비판적 의문의 제기과 그에 대한 반응의 양상에 따라 수용, 해명, 반박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6학년 A학생의 작문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일부를 살펴보자.

(23)

01 D: 두 번째 장점을 보면은, 교복을 입으면은 “공통점을 찾고 기뻐하고 더 잘 지내려고 한다”고 했는데-

02 A: 아니, 여기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03 D: 아니, 근데 교복을 입는다는 것만으로 협동심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04 A: 내가 여기에서 말한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 05 D: 여기에 보이면, “교복을 입으면은 잘 지내려고 한다”는데, 사이가 나쁜 아이는 교복을 입든 말든 나쁠 텐데 옷을 같은 옷을 입는다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어 #같은 협동심을# 가진다는 말은 좀
- 06 B: #맞습니다.#
((웃음))
- 07 D: ⇒협동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의견이 같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08 A: 저는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주변에 효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어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전교생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어찌면 알 수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형남에게)) 너 다 알아↗((예슬에게)) 너는 다 알아↗
- 09 C: 전교생이라면-
- 10 A: 우리 우리, 일 학년부터 육 학년까지 다.
- 11 C: #모르지.#
- 12 B: #어떻게 알아↗#
- 13 A: 너 모르지. 그러니까 효제랑 비교하는 게 교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이다,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네가 우리 싫어하는 거랑 그게 개네가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개네 싫어하는 것도 의견이잖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중에서 효제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안 좋아하잖아. #그것도 한 예일 수 있잖아.(?)#
- 14 C: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게 뭐야↗)#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기뻐하면서 잘 지낸다고 했잖아↗
- 15 D: 말이 안 되잖아↗
((웃음))
- 16 C: #도대체 말이 안 돼.#
- 17 A: #아니, 여기서 여기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지.
- 18 D: 꼭 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없는 게#
- 19 B: #야 그러면 (?)# 효제 애들은 교복 안 입으니까, 개네들은 지네들끼리 싸우겠네↗
((웃음))
- 20 C: A야, 너는 길거리 다니면서 너는 길거리 다니면서 너하고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랑 공감 느껴서# 그 사람이랑 친구하고 그러냐↗
- 21 B: #친근감이랑 기쁨을 느끼냐↗#

((웃음))

- 22 A: 같은 집단 안에 있다는 것을 교복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같은 집단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 23 B: #같은 집단 안에 있는데 괜히# 교복을 안 입으면 개네는 안 친하겠네 ↗
- 24 C: 여기서 그럼, 공통점을 찾는다는 게 이상하잖아 ↗
- 25 A: 알았어, 이진.

여기에서 A의 말차레를 중심으로 상호 작용의 양상을 살펴보면, 말차레 02, 10, 17, 22는 해명, 04, 08, 13는 반박, 25는 수용의 진행(move)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논증을 정교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동료 평가 활동의 진행은 대체로 해명, 반박, 수용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진행의 효율성은 동료 평가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동료 평가 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이 비판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집단적으로 텍스트의 질과 사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진행의 효율성은 곧 개인과 집단의 ‘언어적 진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증 텍스트에 대한 동료 평가 활동에서 나타나는 대화론적 오류들은 상호 작용의 장애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표현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빗어지는 오류라든지, 표현되지 않은 의도를 확대하여 논증하는 오류라든지, 서로 다른 논증 도식을 적용함으로써 빗어지는 오류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논증 도식을 적용함으로써 빗어지는 대화상의 오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8학년 학생의 동료 평가 활동 담화의 일부이다.

- (24) A: 근데 이쪽 약간 이 쪽을 보면은 “이런 의견을 종합하면, 교복을 입되, 입는 방법을 상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잖아 ↗
- C: #음#

D: #어디↗#

A: 여기 위에 그러니깐.

B: 어디 어디↗

A: 여기서부터 (?) #하나 둘 셋#

D: #아, 그러니까. 알겠어.#

A: 근데 여기서 니가 말한 거는 교복을 입는 의미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근데 입긴 입는데 그걸 입는 방법을 상관 안 하면
은 그게 사복을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겠어↗

위에서 C 학생의 주장에 대한 A 학생의 비판은 C 학생과 A 학생이 서로 다른 논증 도식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C 학생은 차이에 기반한 비교 도식을 사용하여 ‘교복을 입는 것’과 ‘교복을 입되, 입는 방법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르며, 이것은 ‘사복을 입는 것’과도 응답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는 데 비해, A 학생은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기반한 비교 도식을 사용하여 ‘입는 방법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사복을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 논증을 하고 있다.

A 학생의 말에서 마지막 부분 “그게 사복을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겠어?”는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그것이 사복을 입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C 학생은 입는 방법이라는 것은 ‘크기를 줄이거나 모양을 바꾸는’ 등의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한다. 여기에서도 표현상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셈인데, 어쨌든, C 학생의 반대 논증은 A 학생과는 달리 차이에 기반을 둔 비교 도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호 작용의 결과

동료 평가 활동을 통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학생들은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을 자신들의 초고에 반영하였다. 퇴고의 양상은 어휘, 문장, 문단의 층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퇴고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료 평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확인한 바, 자신들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다. 독자에 대한 고려는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의 내

용과 표현을 독자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는 교육적으로 볼 때, 작문 과정에 대한 자기 조정(self-regulation) 내지는 초인지(meta-cognition) 행위로 전이 가능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가)는 10학년 I 학생이 동료 평가 활동 후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구술 프로토콜이고, (나)는 (가)의 (8)~(14)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할 때 생성한 프로토콜이다.

(26) 자 바꿔 보자 이걸 일단 빼고 글씨 틀린걸 빼고⁽¹⁾ 그리고 이거 빼야겠다 애들이 일단 헛갈린다고 ⁽²⁾ 여기서부터 다시 써야겠다. 선생님 아까 쓴 거에서요 수정하는 거죠 ⁽³⁾ 이거 빼야지 ⁽⁴⁾ “교복은 일본의 잔재이다”라며 더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거 틀렸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⁵⁾⁽⁶⁾⁽⁷⁾ ?지워졌네 ... 학교에 비악이 조금 있다 거기서 이걸 ? 아 이거 첫째로는 이성친구들에게 잘보이고 싶고 ⁽⁸⁾⁽⁹⁾⁽¹⁰⁾ 다른 학교는 ⁽¹¹⁾⁽¹²⁾ 아니야 이거 그냥 빼자 ⁽¹³⁾ 이것은 ⁽¹⁴⁾⁽¹⁵⁾ 아니다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¹⁶⁾⁽¹⁷⁾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 공동체를 배우는 게 이상하다고 그랬지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¹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도 지웠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 중) 나도 아래 것 다 지웠는데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데 교복의 역할은 빨리 끝내 나 빨리 가고 싶어 ... 진짜? 야 여기 이거 내가 아까 두 번째에서 공동을 배우고 그랬잖아 그것을 내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데 교복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바꿨는데 그러면 됐지 이제 됐고 ⁽¹⁹⁾ 이제 조금더 써야겠다 그리고 ⁽²⁰⁾ 저장해요?

(27) [...] 사복 차림으로 등교를 하면 그에 따른 많은 불편한 사항이 따르게 될 것이다. 첫째로는, ^(8'){이성 친구들에게}→{남녀공학은 서로에게} 잘보이고 싶고, ^(9'){또 청소년시기는}→{모든지 튀어보이고 싶을 나이다. ^(13'){^(10')}→^(11'){그리고 꼭}→{그리고} ^(12')}→{남녀공학이 아니더라도 등교시에 볼수 있을}}→{그러니 자연스럽게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메이커가 달린 값진 옷을 매번 구입을 하는 등의 사치소비가 급증할 것이다. ^(14'){^(14')}→{이것의 경우는 남녀공학이라는 가정을 설정했을때이다. 물론, 남녀공학이 아니더라도..아무리 동성이라도 튀어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VI.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시사(示唆)

근래에 작문 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작문 행위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인 제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내용 범주는 대체로 작문의 인지적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언어 사용의 실제, 즉, 언어 사용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생산과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적 글 쓰기의 과정을 분석하고, 논증 도식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운용의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논증적 텍스트의 구성에서는 논제의 성격에 따라 논증 도식의 운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개인의 인지적, 발달적 특성에 따라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이 다르고 그 결과는 텍스트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셋째, 동일한 논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가 일련의 논증 도식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현실 인식과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이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작문 교육 특히, 논증적 글 쓰기 교육에서는 다양한 논제를 유형화하여 가르치고 각각의 논제를 다룰 때 운용 가능한 논증 도식과 그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인지적 패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기를 단순히 주장과 근거의 이원적 구조로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 관계 즉, 논증 도식을 목록화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둘째,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은 개인의 인지적 발달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논증 도식의 발달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발달 수준에 맞는 논증 도식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치 도식이나 대당관계 도식이 몇 학년 수준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학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사용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 등이다. 예를 들면, 단순히 유추 도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과 유추 도식의 체계를 이해하고 유추 도식의 사용에 대해 던질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의 목록을 이해하는 수준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논제에 대한 현실 인식의 차이가 논증의 인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컨대, 현실 추수적인 태도를 지닌 논증자는 이를 정당화해 주는 현실의 제도와 관습, 관념에 크게 의존하며, 이 경우 인지적 패턴은 이미 확립된 가치 기반에 근거를 두는 연역적인 추론을 전개하거나 그러한 가치를 정당화하는 설명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반대 논거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또 현실 지양적(止揚的)인 태도, 즉,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적 태도를 표방하는 논증 행위의 인지적 패턴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짜임을 취하면서 구체적 사례로부터 보장(warrant)를 만들어 나가는 인지적 패턴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논증자가 정당화하고자 하는 입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인지 패턴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교육의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논증 능력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논증적 글 쓰기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능의 교육을 넘어서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논증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오류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고, 대안적 논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비판의 대상에 구현되어 있는 논증의 양식들을 분석해 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증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비판적 주체를 형성하는 데로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서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문헌>

- 강민경(1999),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목(1987),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제약」, 『뚝어교육』 61·6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영목·한철우·윤희원(2003), 『뚝어교육학 원론(제2판)』, 박이정.
- 이정모 외(2003), 『인지심리학(개정판)』, 학지사.
- 이정모·이재호(편)(1997),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 언어와 인지』, 학지사.
- Anderson, J. R.(199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4th ed.), N.Y.: W. H. Freeman and Company.
- Andriessen, J. & Coirier. P.(eds.)(1999), *Foundations of argumentative text processing*,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Beaugrande, R. de(1984), *Text production*, Norwood, N.J.: Ablex.
- Beaugrande, R. de(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cognition,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knowledge and society*. Norwood, N.J.: Ablex Pub. Corp.
- Eemeren, F. H. van and R. Grootendorst(eds.)(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emeren, F. H. van and T. Kruiger(1987), *Identifying argumentation schemes*. In F. H. van Eemeren, R. Grootendorst, J. A. Blair, and Ch. A. Willard(eds.), *Argumentation 3A*: 70-81.
- Eemeren, F. H. van, R. Grootendorst, J. A. Blaire, and C. A. Willard(eds)(1992), *Argumentation illuminated*, Amsterdam: ISSA.
- Kienpointner, M.(1992a), *Alltagslogik. Struktur und Funktion vom Argumentationsmustern*. Stuttgart / Bad Cannstat t: Frommann-Holzboog.
- Kienpointner, M.(1992b), *How to classify arguments*. In Eemeren et al.(1992), pp.178-188.
- Perellman, C. and L. Olbrechts-Tyteca(1958/1969),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La nouvelle rhétorique: Traité de l'argumentation),
Notre Dame;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Schellens, P. J.(1985), Redelijke argumenten : een onderzoek naar normen voor
kritische lezers [Reasonable arguments: A study of norms for
critical readers], Dordrecht: Foris.

Toulmin, S. E.(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C.U.P.

Walton, D. N.(1996), Argumentation schemes for presumptive reason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초록>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민 병 곤

필자는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 8,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복 착용’ 문제를 논제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작문 텍스트에 사용된 논증 도식의 목록은 키폰트너(1992)를 따랐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인과, 귀납적 예시, 비교’ 도식이 사용되었고, ‘대당 관계, 설명적 예시, 유추, 권위’ 도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증 도식의 분포는 개인별·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논증의 인지 패턴은 논제의 성격이나 입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논증적 상호 작용의 양상은 주로 전제, 추론,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한 비판적 의문과 이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응은 비판, 수용, 해명, 반박 등의 논증적 진행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퇴고의 과정은 어휘, 문단, 텍스트의 층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다양한 논제를 유형화하고 논제의 특성에 따라 운용 가능한 논증 도식과 인지적 패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발달 수준에 맞게 논증 도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비판적 리터러시의 형성, 나아가 비판적 주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논증, 논증 도식, 논증적 텍스트, 프로토콜 분석, 논증적 글쓰기 등.

<Abstract>

The analysis of argumentation schemes in argumentative texts and its didactic implications

Min, Byenog-gon

The writer analyses the argumentation schemes, of which classification adopted form Kienpointner(1992), in the argumentative texts written b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6th, 8th, and 10th grade.

Most schemes found in the texts are ‘causality, inductive examples, and comparison’ and some others are ‘opposition, illustrative examples, analogy, authority.’ The distribution of these schemes in the texts depends on the individuals and groups respectively. Cognitive patterns of using argumentation schemes are supposed to be related with the issues and the standpoints the arguers adopt.

Aspects of argumentative interaction are mostly critical questions and responses to them. The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premises, soundness of reasoning, and property of expression. The responses are argumentative moves like critique, acceptance, explanation, and refutation, etc.

From the analysis, the writer gives following suggestions: 1) Teach argumentative schemes to students in order to support their controlling cognitive constraints. 2) The argumentative schemes given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level of students. Teaching argumentative writing should be planned to formulate the students’ critical literacy and further more to build them as critical subjects.

【key words】 argumentation, argumentation scheme, argumentative text, argumentative writing, etc.